

[보도자료] 쿠팡·쿠팡이츠서비스, 청량리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 “온라인 판로 강화”

2026. 2. 5.



정우윤 쿠팡이츠서비스 대외정책실 실장(오른쪽)과 유완희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장이 5일 청량리에서 열린 쿠팡·쿠팡이츠서비스 X 전통시장 상생협력을 기념하고 있다.

- 150여개 점포 450여명 소상공인 소속 청량리종합시장 대상 온라인 판매·배달 경쟁력 강화
- 온라인 판매전략 컨설팅·포장용기 지원·밀키트 개발 등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확장

2026. 02. 05. 서울 - 쿠팡과 쿠팡이츠서비스(CES)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량리종합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전국상인연합회와 체결한 ‘전통시장 상생협약’의 후속 활동으로,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판로 확대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청량리종합시장은 1960년초 개장한 1호 서울시 종합시장으로, 서울 동북권 최대 규모로 동대문, 청량리 일대 지역경제의 거점 역할을 한다.

쿠팡과 CES는 청량리종합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시작했으며 올해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판매에 익숙하지 않은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점 준비 교육, 메뉴와 상품의 전문가 사진촬영 지원 등 온라인 판매전략 컨설팅을 제공한다.

더불어 150여개 점포의 450여명 소상공인이 소속된 청량리종합시장에 온라인 판매에 활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용기 9만여개를 지원했다. 향후 청량리종합시장의 특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밀키트 개발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량리종합시장에서 견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경동상사’ 매장은 “전통시장도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며 “쿠팡이츠의 전통시장 상생 노력이 새로운 고객 유입과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쿠팡과 CES는 앞으로도 청량리종합시장과 협력해 상인들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청량리종합시장을 비롯해 전통시장이 온라인에서도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